

'98년도 농림사업시행지침

농어촌구조개선 용자지원제도 달라진점

농림부는 '97. 10. 29. 농림사업 실시규정과 농림사업자금집행 관리기본규정을 개정하고, 이에 따른 '98년도 농림사업시행지침을 '97. 11. 8.에 확정하여 '97. 11. 20.에 전국의 시·도·시·군·구, 농촌지도소, 읍·면·동, 농·축·임·삼협 등 관계기관에 배부하였다.('98특별방역사업도 가족방역 공공사업으로 이 속에 포함된다)

'98년도에 적용할 제도개선 및 사업시행지침의 주요내용을 보면

①농업인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신속성있는 사업시행이 가능하도록 유사사업을 통합하여 1사업의 범위를 보다 넓게 설정하였다.

△시설채소생산유통사업과 화훼작물생산유통사업을 시설원예생산유통 사업으로, 양념채소생산유통사업과 고랭지채소 생산유통사업을 노지 채소생산유통사업으로 하는 등 기존의 49개 유사사업을 20개로 통합하고, 기타 사업종류 등의 사유를 고려하여 금년에 사업수가 134개이던 것을 내년에는 99개로 조정하여 1사업의 범위를 대폭 넓게 설정함으로써 사업시행의 자율성과 신속성을 최대한 확대하였다.

②농업인이 사업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정부시책방향의 범위내에서 그가 필요로 하는 세부사업내용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사업시행지침에 명시하였다.

△과실·시설원예·노지채소·특용작물생산유통사업, 축산경쟁력 강화 사업등 자율사업의 경우 각 사업시행지침에 농업인이 신청할 수 있는 세부사업내용의 예를 메뉴로 제시하고 있으나, 일선기관에서 이를 잘못 이해하여 농업인이 동지침에 기재된 것외의 내용을 신청할 경우 신청서를 접수하

지 않아 농업인의 자율성을 해치는 부작용이 있어, 내년부터는 동지침에 정부의 시책방향을 명시하고, 신청하고자 하는 내용이 이에 어긋나지 않는한 농업인이 필요로 하는 내용을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다는 내용도 함께 명시하였다.

③농업인에게 신속한 대출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융자한도액 배정, 대출원장 관리, 대출의 마감처리 등을 엄격하게 적용하도록 융자절차를 대폭 보완하였다.

△융자한도액을 배정할 때에 지원대상자의 자금사용 가능시기를 파악하지 않고 중앙에서 일괄 배정함으로써 자금이 장기간 사장될 수도 있어, 내년부터는 매월마다 다음달에 실제 사용가능한 금액을 지원대상자로부터 신청받아 그 금액 범위내에서 배정하게 하였다.

△대출취급기관이 융자한도액의 배정일자에 상관없이 잔액기준으로 대출원장을 관리하는 관행에 따라 배정된 융자한도액이 누구의 몫인지를 알지 못하므로 효과적인 대출 추구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자금의 흐름이 투명하지도 못한 폐단이 있어, 내년부터는 대출취급기관은 융자한도액이 배정된 일자별로 대출원장을 관리하고 지원대상자에게 매월 2회이상 대출 추구를 하도록 하였다.

△융자금 예산의 이월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다음 회계년도에 가서 대출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어, 내년부터는 당해 회계년도내에 융자

한도액을 배정하지 않은 금액은 부득이한 경우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할 수는 있으나, 일단 융자한도액을 배정한 후에는 매분기말 현재 부도·폐업·사업포기 등의 사유로 대출할 수 없거나 당해 회계년도말까지 대출하지 않은 금액이 있을 때에는 대출 취급기관이 당해 금액을 정부에 반납하게 하였다.

④시·군에서 지원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경영장부를 성실하게 기록한 자와 경영교육을 이수한 자에게 자금지원의 우선순위를 부여하도록 하였다.

△정부자금을 지원받은 자는 경영장부를 기록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제대로 기록하지 않아 개별 경영체의 경영실태를 확인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정부자금을 지원목적으로 사용하더라도 그러한 사실이 쉽게 노출되지 않는 등의 문제가 있어, 내년부터는 시·군에서 동사업신청서를 심사할 때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경영장부를 기록하지 않는 등 기록을 현저하게 소홀히 한 자에게 순위를 부여하지 않는 반면, 성실하게 기록한 자에게는 그렇지 않은 자보다 동일 조건에서 지원의 우선순위를 부여하도록 함으로써 개별경영체가 경영장부를 성실히 기록하는 분위기가 확산되도록 하였다.

△또한 보다 확실한 사업성과를 유도하기 위하여 경영교육을 이수한 자에게도 동일조건에서 미이수 자보다 지원의 우선순위를 부여하

도록 하였다.

⑤시·군에서 지원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성실하고 능력있는 농업인을 보다 객관성있게 선별할 수 있도록 하고, 부실한 경영체가 무리하게 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전년도 지원실적의 공개제도를 신설하였다.

△종전에는『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및『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등의 취지에 따라 정부자금을 지원받은 자의 지원내용을 공개하는데 한계가 있어 부실한 경영체가 정부자금을 지원받아 지원목적으로 사용하는 등 부작용이 생겨도 이에 대하여 적절히 대응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으므로

△앞으로는 시·군에서 지원대상자를 선정할 때에 지연이나 학연 등을 최대한 배제하고 발전 가능성이 큰 농업인을 선별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지원후에도 자격이 없는 자 또는 사업보다는 정부 자금을 지원받을 목적으로 사업신청서를 제출하여 연고에 따라 지원받은 자 등 부실한 경영체가 밝혀질 수 있도록 전년도에 경영체별로 지원한 실적을 다음년도 1-2월에 열리는

농·축·임·삼협의 경영평가보고회자료, 시·군·구의 홍보자료 및 농촌지도소에서 실시하는 새해 영농설계교육자료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근거를 신설하였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정부자금을 지원받거나 하는 시·군에 보조금을 신청하거나 대출취급기관에 대출금을 신청할 때에 "차에 지원실적을 공개해도 이의가 없다"는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전문경영체를 육성하고 농업진흥지역을 보전하기 위한 정책방향을 사업시행지침에 예고하였다.

△전문경영체 위주의 농업경영을 통하여 조기에 품목별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과실·시설원예·노지채소·특용작물생산유통사업, 축산경쟁력강화사업 등 자율사업의 경우는 '99년부터 전업농, 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법인인 전문생산자조직 등 전문경영체를 우선지원대상자로 선정할 계획임을 사업시행지침에 예고하였다.

△또한, 농업인의 자생력을 확보하고 책임경영 의식을 높이기 위해 자율사업에 대하여는 연차적으로 보조금을 장기저리의 융자금으로 전환할 계획인데, 특히 우량농지를 타용도로 전용하는 것을 막아 농지잠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99년부터는 지원받거나 하는 사업장이 농업진흥지역내에 위치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는다는 내용도 위 사업의 사업시행지침에 예고하였다.('97/11/24 농림부발표자료)

양봉회관건립추진위 성금모금현황

◆지난 11월12일 강원도 영월군분회(분회장 박순기) 회원일동이 성금 5십만원을 모아 보내왔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관건립추진위 발기서명자 ◇이상갑 이사 ◇전기현 서울지회장 두분께서 약속된 성금을 지난 10월24일 추진위 지정계좌로 납입했습니다. 발기서명 전체 20명 중에 약속이행 발기인은 현재 9명(45%)입니다. (본보 8월호 발표 이후임)

발표일	성금 납입내역	금액
'97. 8. 25	양봉협회보 8월호 발표총액	15,500,000
'97. 12. 31	이상갑(본협이사)	3,000,000
	전기현(서울지회장)	1,500,000
	강원 영월군분회원 일동	500,000
	성금이 답지된 총액	20,500,000

13시·도지회 定總 성황리에 마쳐

구랍 1일 부터 순차적으로 열렸던 본협회 13개 시·도지회 '97정기총회가 제주지회를 제외(1월7일 열림)하고 모두 막을 내렸다.

한달 앞서 열렸던 동계양봉대학-5개지역 순회교육 실시등 월동기를 맞아 잇달은 지역별 양봉농가 모임행사 붐이 조성된 가운데

거의모든 지회 정기총회마다 자리가 부족할 정도로 높은 참석율을 보였다.

이는 양봉인 특유의 개인적 사교방식에서 벗어나 공동체 참여가 돼야만 정부·지방자치 행정과 연계해 특별방역사업과 같은 공공사업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인식

으로 바뀌고 있음을 말한다.

이런 현상이 두드러진 지역은 강원·인천·대전지회등 신생지회와 경기도 북부, 충남 서부지역, 경남 울산지역등이다.

특히 울산분회는 울산광역시 승격과 더불어 지방자치단체 행정지원과 연계되어 울산지회 창설승인 요청서를 본회에 접수시켜 1월16일 이사회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효능이나 기호성에서 자연화분을 능가하는 신제품!



락터알부민대용화분

폴벌표 Lactalbumin Pollen Substitutes®

1년묵은 자연화분보다 봉아 육성면적이 월등한 락터알부민에 자연화분 12%와 비타민C 및 천연칼슘을 첨가하고 특히 유기산을 배합하여 육아에 절대 필수인 육아봉의 봉유량을 획기적으로 증가시키는 이상적인 대용화분이다.



강원밀봉원

☎220-031 원주시 학성1동 436-4 (역전)

☎ (0371) 42-3737 · 45-3737 FAX 731-3737

양봉을 밑바탕으로 기업화한 저희 업체가 수입개방시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종합식품유통업체로 발돋움하였습니다.

오늘이 있기까지 성원해주신 회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양봉산물 가공유통업자

(주)꽃샘종합식품

Kkoch Shaem General Food Co. Ltd

대표이사 이상갑

힘들여 생산한 벌꿀을 비롯한 양봉산물의 소중함, 철저한 품질관리로 가공유통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경기 포천군 소흘읍 이가팔리 240

☎(0357)541-9921 ~ 2. 팩스 541-9933